



오미희 작 'milk'

녹색의 봄

예술에 환경을 담다

광주 환경미술협, 불·독 작가 등 40여명 전시... 상록전시관 야외공원

과거 환경 문제가 기술적이고, 공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문화를 통해 환경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예술 작품의 감동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이해하는 교육 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광주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생성과 순환' 그 변화되는 모습과 생명의 퍼즐 맞추기'전이 열린다. 서구 농성동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 상록전시관과 야외공원 일대, 오는 31일까지.

이번 전시에는 환경미술협회 광주지회(지회장 이매리) 회원과 프랑스, 독일, 중국, 대만 작가 40여 명이 참가해 환경문제를 다룬 회화, 설치 작품 등을 선보인다.

김광길, 김현호, 박민경, 박유자, 신호은, 신호재, 안진성, 오상문, 오미희, 이지현, 임병중, 윤익, 천영록, 홍지애, 홍해란씨 등이 참여한다. 또 프랑스 진 로버트 프랑코, 독일 오즈카 쉐, 대만 삼수, 중국 쉐 웬웨이, 쉐, 이에 링한 등도 작품을 내었다.

특히 아름다리 나무와 지천으로 꽃이 피어있는 상록전시관 야외 공원에 작품을 설치해 더욱 눈길을 끈다.

옛 전남도지사공관을 리모델링 한 상록전시관의 부지 면적은 1만8천128㎡에 달해 전시실 안에서 느끼지 못했던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윤익씨는 야외공원 나무에 붉은 실을 매달아 환경의 소중함을



삼수 작 '동화오금'

일깨워 주는 '무제'를 선보이고, 정운화씨는 구겨진 마대 자루로 여체를 표현한 'sack'를 전시한다.

삼 수씨는 인간의 몸 모형을 야외공원 나무에 매달아 인간과 자연이 별개의 삶을 살지 않고, 한 몸이 되는 과정을 형상화 한 '동화오금(東和五金)'을 출품했다.

이매리 회장은 "환경과 관련된 주제와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시도와 해석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이며, 이를 통해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실천하는 전시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0년 창립된 환경미술협회는 미술을 통해 황폐해진 환경을 생각하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꿈꾸는 미술인들의 모임이다. 환경미술 관련 미술제와 국제 교류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문의 062-222-357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제 54회 호남예술제 국악 입상자

- <심사위원>
성심은 교수(전남대)
김동현 교수(광주교육대)
- 자1)
◇ 기악(고등부)-해금
▲ 금상=1 고운설(광주예술2)
2 한태현(한국전통문화2)
◇ 기악(고등부)-장구
▲ 은상=1 김한샘(한국전통문화2)
2) ◇ 가야금 신곡(초등부 3,4학년)
▲ 은상=1 김하경(조봉4)
◇ 가야금 산조(초등부 5,6학년)
▲ 동상=1 김예슬(정암5)
◇ 가야금 신곡(중등부)
▲ 은상=1 박문정(대성여자2)
◇ 가야금 병창(초등부 3,4학년)
▲ 은상=1 이유나(일산4)
▲ 동상=2 김민진(광주본초3)
◇ 가야금 병창(중등부)
▲ 금상=1 주다슬의 19명(관산 4~6) 2 최소연의 13명(나주3~6) 3 손서영의 7명(광주송원1~6)
◇ 가야금 병창(중등부)
▲ 동상=1 이한솔빛(담양여자2)
◇ 가야금 병창(고등부)
▲ 최고상=1 김슬기(대성여자3)
◇ 성악-판소리(중등부)
▲ 동상=1 최교민(광주서광1)
◇ 성악-판소리(고등부)
▲ 동상=1 최교진(동일전자정보 1)
- ※최고상 수상자는 컬러 인물 사진 2매를 5월 14일까지 본사 문화홍보국으로 제출하십시오.

7일 광주시민회관에서 열리는 외국으로 입양됐다 23년만에 상봉한 모녀 환경식이 열렸다.

친어머니 H씨와 헨리 밀러가 만나는 데 도움을 준 충현원과 광주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밀러와 양어머니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때, 함께 무대에 오른 H씨



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기자는 밀러와 친

어머니의 사연을 취재하기 위해

지난 6일 오전부터 충현원측에

취재 요청을 했었다.

사진을 찍지 않고 설명도 밝히

지 않겠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충

현원측은 친부모가 공개를 원하

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근을 막았

었다.

생색내기로 망친 '23년만의 상봉'

의 모습은 안쓰러워 보였다. 가난 때문이기는 했지만 딸아이를 버렸다는 마음에 죄책감을 안고 살았던 H씨는 어두운 표정이 역력했다.



김대성 <문화생활부 기자>

하지만 하룻만에 상황은 바뀌었다. 모녀 상봉은 사업 홍보용이 돼 버리고말았다.

H씨가 무대 위에서 있었던 10분은 남몰래 눈물을 흘려야 했던 23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충현원과 협의회는 23년간 끊어졌던 예뻐한 가족의 끈을 이어준 훌륭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지나친 생색내기가 좋은 취지를 망치고 말았다.

사업 홍보에 앞서 비련의 모정을 안아주고 인권을 보호해야 하지 않았을까?

/bigkim@kwangju.co.kr

대구시립무용단 광주무대서다

'호영남 춤 페스티벌' ... 12일 문예회관

을 초 열렸던 아시아공연예술제 '춤추는 남자들' 무대에 올랐던 대구시립무용단은 파워풀한 몸동작과 짜임새 있는 스토리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제 14회 '호영남 춤 페스티벌'을 진행하는 광주무용협회(회장 정혜경)의 초청을 받은 대구시립무용단이 광주 지역 대표 무용단들과 한 무대에 선다. 12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대구시립무용단이 선보이는 작품은 '파괴를 계속하는 중에서'(사진).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노아의 방주를 연상시키는 거대한 우주선 '파괴'를 만들어 우주로 탈출을 꿈꾸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최두혁씨가 안무를 맡았으며 윤진혁 등 12명의 단원이 출연한다.

또 전국무용제 대령상 수상에 빛나는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은 수레바퀴처럼 반복되는 인간 삶의 모습을 임지형씨의 안무로 묘사한 '일흔'을 선보인다. 김미선씨 등 25명의 무용수가 출연, 짝 찬 무대를 연출한다.

그밖에 광주시립무용단은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 중 5막에 나오는 발레 작품인 '오페라 발레-발푸르기의 밤'을 무대에 올리며 서영무용단은 물 흐르듯 흘러가는 인간사를 표현한 한국무용 '풍류'를 선보인다. 전석 1만 2천원. 문의 062-674-263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무지크바움 앙상블 화요일 예술무대에

12일 문예회관 소극장

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공연 레퍼토리는 올해 탄생 200주년을 맞은 멘델스존의 곡으로 꾸며졌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를 위한 4중주곡 3번 B단조'와 '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를 위한 트리오곡 D단조'다.

소프라노 홍선희씨와 메조소프라노 전진씨가 찬조 출연해 멘델스존의 성악곡 '저녁의 노래', '은방울꽃과 작은 꽃'을 들려준다. 전석 만원. 문의 062-650-156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50th

사랑을 만들어가는 50명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http://www.kukjeopharm.co.kr

사랑과 희망으로 크는 국제약품-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50년을 함께해온 국제약품의 사랑과 희망- 그 속에 늘 고객 여러분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약품 510명은 가장 좋은 약은 "사랑" 이라는 신념으로 이땅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참여한 지난 50년-

그 마음, 그 신뢰감, 그 사랑 그대로 50년, 100년 고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 캡슐

비타민 A, C, E의 보급

- 동맥비탄, 혈산, 수컷기 병용, 병후 회복, 저하 시 노년기
- 눈의 건조감과 명파, 야맹증
- 햇빛 피부병 등에 의한 색소침착(미, 주근깨) 피 광포 인공출혈, 비출혈 예방
- 알츠하이머병 및 경기시 다중 증상의 완화
- 허위, 과피로, 수족저편 수족관종

아연의 보급

광고심의필 : 1005-0430